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1. 밑줄 친 '나'가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명령 때문에 유대인을 죽였을 뿐이라고 강변한 나치 장교에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당신이 따른 명령이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는 올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 ① 삶에 대한 숙고와 성찰을 통해 당위를 실천한다.
- ② 본능적 욕구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
- ③ 본성이 이기적이어서 타율적인 규제를 필요로 한다.
- ④ 공동체가 요구하는 규범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다.
- ⑤ 주어진 운명과 기존의 사회 규범에 조건 없이 순응한다.

2.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유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하나인 ㉠ 은/는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른 하나인 ㉡ 은/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① ㉠은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정책의 확대를 강조한다.
- ② ㉡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이 침해될 수 있다.
- ③ ㉠은 ‘~를 향한 자유’, ㉡은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된다.
- ④ ㉠, ㉡은 대립하기 때문에 언제나 양립 불가능하다.
- ⑤ ㉠, ㉡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한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할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선을 행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며, 악을 행하면 마음이 꺼림칙하고 답답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을 즐겨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기호(嗜好)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벌은 여왕벌을 호위하지만 이를 충(忠)이라고 하지 않고, 호랑이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더라도 악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동물의 행위는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있으니, 선악이 모두 자신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 ① 선행을 하기 위해 모든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
- ② 옳은 행위를 계속하여 악한 본성을 극복해야 한다.
- ③ 마음을 비워 시비(是非)를 분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 ④ 친소(親疎)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
- ⑤ 선(善)을 좋아하는 욕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 | |
|-----|---|
| (가) | <p>갑: 쾌락의 향유와 유덕한 삶을 분리할 수는 없다. 우리가 강조하는 쾌락은 방탕한 자의 쾌락이 아니라, 마음에 불안이 없고 몸에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p> <p>을: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그중 하나를 뚜렷이 선호한다면 그 쾌락은 질적으로 우월한 것이다. 이 쾌락은 양의 많고 적음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p> |
| (나) | |

- ① A: 행복한 삶과 유덕한 삶은 별개의 것이다.
- ② A: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의 기본 원리이다.
- ③ B: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중시해야 한다.
- ④ C: 행복을 위해서 공적인 생활을 피해야 한다.
- ⑤ C: 쾌락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다.

5.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가) | 사람과 국가는 같은 방식에 의해 정의롭게 된다.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의 세 부분이 각각 제 일을 하면 정의롭게 되고, 국가의 경우에도 세 계급이 저마다 제 일을 하면 정의롭게 된다. |
| (나) | _____ ㉠ _____. 그러면 이상적인 인간이 될 것이다. _____ ㉡ _____. 그러면 이상 국가가 실현될 것이다. |

| | ㉠ | ㉡ |
|---|--------------------|---------------------|
| ① | 나약한 의지를 극복하라 | 국민에 의한 통치를 구현하라 |
| ② | 철학자를 모범으로 삼아라 |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라 |
| ③ | 주관적 가치 기준을 확립하라 | 사회의 계급 질서를 철폐하라 |
| ④ | 이성으로 기개와 욕구를 다스려라 | 지혜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게 하라 |
| ⑤ | 경험을 통해 참된 존재를 인식하라 | 공공 정신이 투철한 수호자를 길러라 |

6.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자기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임을 모르다가 단박에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을 ㉠(이)라 하고, 자기의 성품이 부처와 같음을 깨달았지만 몸에 배어 있는 습기(習氣)를 갑자기 없애기는 어렵기에 꾸준히 닦아 나가는 것을 ㉡(이)라 한다.

- ① ㉠은 절대자의 도움으로 깨닫는 것이다.
- ② ㉠은 경전 공부를 오래하였을 때 이르는 경지이다.
- ③ ㉡의 내용은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는 것이다.
- ④ ㉡은 속세에서 벗어나 홀로 수행해야만 체득되는 것이다.
- ⑤ ㉡은 자신이 본래 완성된 부처임을 직관(直觀)하는 것이다.

7. 갑과 을은 부정, 병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을: 신앙과 이성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며,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우리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병: 자연은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실체이다. 자연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에서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 생긴다.

- ① 신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부여하였는가?
- ② 신은 창조주로서 우주를 주재하는 존재인가?
- ③ 신과의 합일은 지향해야 할 이상적 경지인가?
- ④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인가?
- ⑤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인간은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가?

8. 표는 어느 근대 한국 사상에 대한 한 학생의 질문 응답지이다. 응답이 모두 옳다고 할 때, ㉠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 번호 | 질문 | 응답 | |
|-----|-------------------------------------|----|-----|
| | | 예 | 아니요 |
| (1) | 신분, 남녀, 노소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는가? | ✓ | |
| (2) | 사람은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侍天主]고 제창하였는가? | ✓ | |
| (3) | 우주의 진리는 일원상(一圓相)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가? | | ✓ |
| (4)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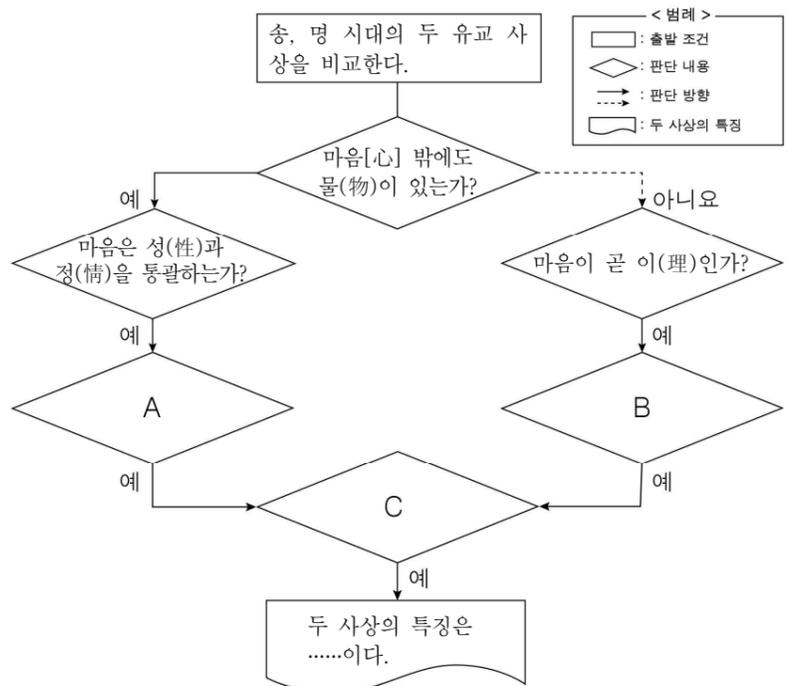
- ① 불교 사상을 근간으로 한 생활 불교를 표방하였는가?
- ② 외세에 대항하여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는가?
- ③ 서양의 종교로 우리의 정신을 개조할 것을 강조하였는가?
- ④ 새 세상을 맞기 위해 해원상생(解冤相生)을 제창하였는가?
- ⑤ 성리학을 통해서만 외세의 침탈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는가?

9. 갑에 비해 을이 강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나는 내가 행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가 행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역사는 항상 나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을: 사람들은 개성을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 각자의 개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서만 행동한다면, 자신의 행복과 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개별성을 잃게 될 것이다.

- ① 자아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연고적 존재이다.
- ② 개인은 자율적 선택에 따라 삶의 목적을 설정한다.
- ③ 사회 안정을 위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개인은 사회적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 ⑤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유대가 개인의 행복의 바탕이 된다.

10. 그림의 A ~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만물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가?
- ② A: 지(知)와 행(行)은 본래 하나인가?
- ③ B: 지식 확충과 도덕 실천을 병행해야만 하는가?
- ④ B: 격물(格物)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는 것인가?
- ⑤ C: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인욕(人欲)을 제거해야 하는가?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1. 갑, 을, 병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 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천자가 된다.
 을: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에, 성왕(聖王)이 지은 예의(禮義)를 얻은 후에야 다스려질 수 있다.
 병: 군주가 법(法)과 술(術)을 버리고 마음으로 다스리려 한다면 요임금도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없다.

- ① 을은 예가 고대 성왕에 의해 제정된 것임을 부정하고 있다.
- ② 병은 상벌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효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 ③ 을, 병은 인간의 본성이 변화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을, 병은 덕치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을, 병은 올바른 정치의 기반이 타고난 덕성임을 모르고 있다.

12.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훌륭한 사람은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쾌락을 포기하고 궁핍을 감수한다. 그는 나와 남의 구별이 기만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안다. 그는 자기와 남, 그리고 세계의 본질이 모두 '삶에의 맹목적 의지'라는 것을 추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식한다.

- ①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금욕을 실천해야 한다.
- ②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만물의 본질을 규명해야 한다.
- ③ 살려는 의지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④ 절대적 유일신에게 귀의하는 종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 ⑤ 도덕적 행위는 동정심이 아니라 이성애 근거해야 한다.

13. ㉠ 사상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양 사상 특강

절대 자유를 추구한 사상가 ㉠

- 사상적 특징
 - 주체적 수양과 내면적 자유를 중시함.
 - 나와 남, 자신과 세계의 구분을 부정함.
- 이상적 경지
 - 외물(外物)의 속박에서 벗어남.
 -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됨.
- 수양 방법
 - 조용히 앉아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음[坐忘].
 -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함[心齋].



- ① 백성이 향상된 마음[恒心]을 갖도록 생업을 보장해야 한다.
- ② 공과격(功過格)에 따라 매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 ③ 예악(禮樂)과 같은 도덕규범에 엄매이지 말아야 한다.
- ④ 내면적 도덕성인 인(仁)을 삶 속에서 실현해야 한다.
- ⑤ 내 마음의 양지(良知)로써 만물을 이해해야 한다.

[14~15] 갑,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도덕성의 진정한 근거는 선의지뿐이다.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도덕 법칙, 주관적으로는 모든 경향성을 버리고서라도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뿐이다.
 을: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느껴지는 것이다. 어떤 행위나 성품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시인(是認)의 감정을 가져다준다면 선한 것으로, 그 반대라면 악한 것으로 규정된다.

14.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동기와 결과를 고려한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본다.
- ② 갑은 공동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도덕 법칙이 정해진다고 본다.
- ③ 을은 옳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본다.
- ④ 을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쾌감을 느끼는 것을 선으로 본다.
- ⑤ 갑, 을은 공감에서 비롯된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본다.

15. 다음의 관점을 지닌 사상가가 위의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에게 도덕적인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은 배려를 향한 동경과 열망이다. 배려에 바탕을 둔 윤리는 본질적으로 여성적인 것이며, 배려에 근거한 도덕적 의사 결정은 추상화 과정보다 오히려 구체화 과정을 요구한다.

- ① 도덕 법칙의 보편타당성을 경시하고 있다.
- ② 도덕적 의무 의식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 ③ 도덕 법칙이 계약의 산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다.
- ④ 남성적 도덕성이 제거되어야 정의가 구현됨을 모르고 있다.
- ⑤ 도덕적인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16. 사회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누구와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질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유지될 것이다.
 을: 우리는 프롤레타리아를 계급으로 형성시켜 부르주아의 지배를 뒤엎고자 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계급 없는 사회를 이루고자 한다.

- ① 갑은 재분배 정책을 통해 경제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 ② 갑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기회의 동등한 부여만으로도 평등이 실현된다고 본다.
- ④ 을은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한다.
- ⑤ 갑, 을은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17. 그림에서 학생들이 모두 적절한 대답을 했다고 할 때, A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어 있다.
- ② 사단은 선이고 칠정은 악이다.
- ③ 사단과 칠정의 연원은 다르다.
- ④ 사단은 성(性)이고 칠정은 정(情)이다.
- ⑤ 칠정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 것이다.

18. ㉠이 ㉡에 비해 강조하는 도덕적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어느 현대 윤리 사상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중시한 ㉡ 근대 윤리 사상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소홀히 하였다고 비판한다. 이 현대 윤리 사상은 올바른 행위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덕 있는 성품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위를 인도하는 법칙이나 원리보다는 선을 지향하는 성품과 습관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 ① 선한 품성으로 인해 선을 자연스럽게 행한다.
- ②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의식적으로 실천한다.
- ③ 덕성이 아니라 합리적인 추론에 따라 행위한다.
- ④ 자연적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의 명령을 따른다.
- ⑤ 자신의 행위가 공리성의 원리와 일치하는지 살핀다.

19.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수행 평가]

㉠ 문제: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갑: 덕으로 이끌고 예로써 다스리면, 백성은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또한 스스로를 바로잡게 된다.
 을: 지혜로써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에게 해(害)가 되고, 지혜로써 다스리지 않으면 복이 된다.

㉡ 학생 답안

갑은 ㉠ 자신을 수양하고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을은 ㉡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갑, 을은 ㉢ 힘에 의존하는 통치를 반대하였고, ㉣ 정치의 목적이 문명의 발달과 물질적 풍요를 이루는 데 있다고 보았다. 한편 ㉤ 갑은 대동 사회를, 을은 소국과민 사회를 이상향으로 보았다.

- ㉠ ㉠ ㉡ ㉡ ㉢ ㉢ ㉣ ㉣ ㉤ ㉤

20.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적 인간은 비가 오고 난 뒤 길바닥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지렁이를 보면 햇볕에 말라죽지 않도록 풀숲으로 옮겨 주고, 길을 가다가 물이 낀 곳에 떨어진 곤충을 보면 구해 준다. 생명을 보존하고 촉진하는 것은 선이며, 생명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것은 악이다.

- ① 인간은 모든 생명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② 다른 생명과 달리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 ③ 생명의 가치를 유용성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④ 생명들의 가치는 객관적인 위계질서를 갖는다.
- ⑤ 자연의 모든 존재는 외경(畏敬)의 대상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